

한국판 지혜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김민희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민경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판 지혜 척도를 개발하여 지혜 개념의 구성요인을 확인하고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실시하였다.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1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혜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경험적 접근을 통해 지혜의 구성개념을 추출하였다. 서구의 기존 지혜 척도 문항과 한국인이 생각하는 지혜와 관련된 특질을 수집한 102개의 문항을 전문가 집단을 통한 내용 분석에 근거하여 예비문항 51개로 축소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선정된 51개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43문항의 KMWS(KIM-MIN Wisdom Scale)를 구성하였다. 4개의 지혜 요인은 ‘인지적 역량’, ‘절제와 균형’, ‘긍정적 인생태도’, ‘공감적 대인관계’로, 척도의 전체 Cronbach α 는 .93, 요인별 Cronbach α 는 .76~.90이었다. 연구 2에서는 KMWS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공준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6이었고, KMWS로 측정된 지혜 점수는 삶의 만족, 안녕감, 정적 정서 경험과는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우울, 부적 정서 경험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 KMWS가 지혜를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의의를 논의하고 후속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지혜, 지혜 척도, KMWS, 인지적 역량, 절제와 균형, 긍정적 인생태도, 공감적 대인관계

* 본 연구는 제 1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일부 발췌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minhwan@snu.ac.kr

심리학 분야에서 지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이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Chandler & Holliday, 1990).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지혜 개념은 심리학자들의 흥미를 끄는 주제가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된 것은 전생애 발달 관점과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관심(Ardelt, 2000a; Baltes, Staudinger, & Sowarka, 1990), 그리고 긍정 심리학(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의 결합이다.

심리학적 개념으로서 지혜의 역사는 Erikson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rikson(1950)은 지혜는 인생 후반의 성숙과 심리적 발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으로서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였고, 인생 발달의 마지막 단계에서 부딪치는 과제를 잘 해결한 결과로 자아통합을 이루게 되는데 이로 인해 나타나는 절정의 덕목이 바로 지혜라고 하였다. 즉,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삶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초연해지게 되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다. 또한 Erikson(Erikson, Erikson & Kivnick, 1986)은 지혜로운 사람은 실제 삶의 문제에 대한 경험과 능력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개인적 자질과 사회적 지식에 이르기까지 풍부하고 광범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Erikson은 지혜의 구성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지 않았고 따라서 지혜는 여전히 연구하기 어려운 주제로 여겨져 왔다.

지혜 개념과 지혜 구성요소의 측정

서구 문화에서 지혜는 오랜 역사를 가진 개념으로, 문헌에 나타나는 이 개념의 핵심은 유토피아적인 지식과 특질, 마음과 미덕의 통합으로 나타난다(Baltes & Staudinger, 2000; Baltes & Kunzmann, 2003). 서양의 사전적 정의

를 보면 Oxford Dictionary에서는 지혜를 “경험, 지식,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힘: 신중, 상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American Heritage Dictionary에서도 “무엇이 진실이고, 옳고 지속되는가에 대한 이해; 상식; 현명, 좋은 판단”으로 정의한다.

지금까지 지혜를 연구한 심리학자들의 가장 일차적인 관심도 구성개념으로서 지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집중되어왔다. Birren과 Fisher(1990)는 여러 지혜 연구자들의 지혜 개념을 개관하여 고대 그리스와 기독교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에서부터 현대적인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의를 정리하였다. Labouvie-Vief(1990)는 지혜를 “외적이고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logos와 내적이고 주관적이며 유기체적인 mythos의 균형”이라고 하였고, Kramer(1990)는 “사고, 감정, 반성의 상대적이고 변증법적인 방식의 유기체적 통합 즉, 상호관계 내에서 발달해온 현실에 대한 조망”이라고 정의하였다. Birren과 Fisher(1990)는 이러한 정의들을 통합하여 “지혜는 인생 과제와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 인간 능력의 감정적, 능동적, 인지적 측면의 통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지혜는 강렬한 정서와 초연함, 행동과 행동하지 않음, 지식과 의심의 반대되는 가치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반면 Baltes와 Smith(1990)는 전문지식의 유형-삶의 기본적인 실용성 영역에서 좋은 판단과 조건을 포함하는 지식의 전문적 상태. 으로 지혜의 다차원적 정의를 제시하였다. 즉, 지혜를 인생 문제에 대한 고도로 발전되고 숙련된 지식체계로 보고, 지혜의 정의로서 5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지혜에 대한 정의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들이 지혜의 속성에 대해 공유

하고 있는 생각들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혜는 지식, 기술, 지능, 미덕, 개방성과 같은 다른 인간 강점들과는 구분되는 것이고, 둘째, 통합적이며 개인 간, 그리고 개인 내적 개념이고(Baltes et al., 2000; Kramer, 2000; Sternberg, 1998), 셋째,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 속성이다. 즉, 지혜는 “잘-정의된, 다차원적이고, 원형적으로 조직화된 능력에 대한 기술이다”(Chandler et al., 1990, p. 105).

지혜 연구자들은 독립적 구성개념으로서의 지혜를 측정하고자 시도해왔다. 지혜 측정의 대표적 연구들은 MPI(Max-Planck Institute)의 베를린 그룹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베를린 패러다임에서는 지혜를 “인생의 의미와 행위에 관련된 실존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뛰어난 전문성”으로 정의한다(Baltes et al., 1990; Baltes & Staudinger, 1993, 2000).

베를린 그룹의 지혜 연구자들은 인생 계획, 인생 경영, 인생 회고에 관한 가설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지혜 관련 수행’을 측정함으로써 지혜를 평가한다. 그들은 지혜 관련 수행이 5개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때에만 지혜에 근접하는 것으로 여긴다. 5개의 기준은 인생 본성과 인생 여정에 대한 사실적 지식(factual knowledge), 인생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풍부한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 인생의 다양한 맥락을 자각하고 그것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고 인생애를 걸쳐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이해하는 인생 맥락적 사고(life-span contextualism), 개인, 사회, 문화에 따라 중요성과 인생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음을 아는 상대주의적 사고(relativism), 자기 자신의 지식의 한계와 불확실성을 다루는 것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는 불확실성의 인식(uncertainty)이다(Baltes et al., 2000).

베를린 그룹 외에 명시적 지혜 연구를 이끄는 대표적인 연구자는 Ardel(2004a; 2004b)이다. Ardel(1997; 2000a)는 지혜를 인지적, 반성적, 감정적인 것의 조합으로 정의하고, 베를린 그룹의 수행에 기반한 특질이 아닌 성격 특질로 지혜를 정의한다. Ardel가 제안하는 지혜의 세 차원 중 인지적 차원이란 인생을 이해하는 능력, 특히 개인 내적인 사건과 개인 간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 본성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지식의 본질적인 한계, 인생의 예측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을 아는 것 등이 포함된다. 반성적 차원은 인지적 차원의 발달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자기-자각과 자기-통찰을 발달시키기 위해 다양한 관점으로 사건과 현상을 바라봄으로써 반성적 사고를 하는 것이다. 반성적 사고는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취하는 능력과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타인이나 주변조건을 탓하지 않는 것 등을 포함한다. 감정적 차원은 공감, 동정의 느낌, 동정적 행동처럼 다른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행동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 대해 냉담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Ardel(2003)는 인지적, 반성적, 감정적 차원의 지혜를 측정하는 3D Wisdom Scale(3-Dimensional Wisdom Scale)을 개발하였다.

현재의 지혜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관점과 보다 최신의 지혜 정의들을 가지고 지혜를 연구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몇몇 지혜 척도들이 개발되었는데, 그 예로 Yang(2000), Webster(2003)의 지혜척도가 있다.

문화와 지혜 개념

한국어 사전에서 한자어로 표현되는 지혜

(智慧·知慧)는 “사물의 도리나 선악 따위를 잘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 슬기. 혹은 불교에서, 미혹(迷惑)을 끊고 부처의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을 이르는 말”로 정의된다(Daum 국어사전). 한국어의 지혜 정의를 서구의 사전적 정의와 비교해보면, 비록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서로 조금씩 다르다. 이것은 비록 시간과 문화에 관계없는 지혜의 중요한 핵심 개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문화, 언어, 종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지혜는 한 문화 내에서 가치를 지니고, 그 문화 구성원들에 의해 평가되고 유지되는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이며(Holiday & Chandler, 1986; Meacham, 1990; Robinson, 1990), 지혜가 발달하는데 필요한 언어, 지식과 같은 전반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이다(Staudinger & Baltes, 1996).

Clayton과 Birren(1980)은 관련 문헌을 고찰하여 히브리, 그리스, 불교 전통에서 지혜가 다르게 정의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Assmann(1994)은 역사 자료 연구를 수행하여 서구 시민사회의 지혜 개념이 고대 사회, 헬레니즘 시대, 중세 시대, 르네상스 시대, 과학 혁명 시대, 현재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거치면서 변화해왔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어떤 문화적·역사적 맥락에서 지혜로 여겨졌던 것이 다른 문화에서는 과기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Levitt(1999)는 13명의 티베트 불교 승려를 인터뷰하였는데, 이들은 지혜를 ‘불교관념에 대한 이해’로 정의하였다. Takayama(2002)는 일본인의 지혜를 조사하였는데, 일본인은 지혜를 실용적이고 경험에 근거를 둔 능력으로 보는 반면 추론능력이나 일반적 지능과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보았다. 대만 중국인들을 조

사한 Yang(2000)의 연구에서, 대만계 중국인들은 라틴계 미국인과는 달리 사회의 조화를 가져오는 실용적 개념으로 지혜를 정의하였고 겸손함과 주제넘지 않음이 중국문화의 독특한 지혜 특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Takahashi와 Bordia(2000)는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의 지혜 개념을 비교하였는데, 미국인과 호주는 지혜를 ‘경험 있는’, ‘지식이 있는’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정한 반면 ‘사리분별 있는’과는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평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서구의 지혜가 삶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광범위한 지식과 전문성을 강조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Achenbaum & Orwoll, 1991; Clayton et al., 1980). 반대로 인도인과 일본인은 지혜를 ‘사리분별 있는’, ‘나이든’, ‘경험 있는’의 순서로 평정하고 ‘지식이 있는’은 지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평정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는 지혜 개념이 특정 문화적 맥락에 따라 변함을 강하게 지지한다. 인도와 일본과 같은 동양 문화는 지식 축적과 같은 인지적 특징을 덜 강조하고, 지혜를 ‘사리분별 있는’과 동일시하였는데 이는 지혜가 단지 인지적 능력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정서적 관여를 수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혜 개념이 시대,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지혜는 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하며, 지혜가 표현되는 문화적 맥락과의 결합이 없이는 지혜 개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Meacham, 1990; Staudinger et al., 1996, Yang, 2000).

하지만 지혜 개념이 문화와 시대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연구자들의 반복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 내의 지혜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우리 문화에서 지혜에 대한 관심이 신학과 종교의 측면에 주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 지혜 개념은 매우 복잡하여 경험적 연구를 위해 조작적 정의를 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Sternberg, 1990).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는 고령화, 다문화, 갈등의 심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지혜는 애매하고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최선의 가능한 해결책을 찾도록 촉진하는 것이므로(Ylimaki & McClain, 2009), 지금의 한국사회는 지혜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 문화에서도 지혜 연구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혜와 적응

지혜가 삶의 예술을 가르치고 인생의 행위들과 인생의 의미에 관한 전문지식이라면, 적응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Ardelt, 2004a). Ardelt(2003)의 연구에서 지혜는 우울과는 부적 관계를 그리고 자율성, 숙달감 등과는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후속 연구에서 지혜는 성숙, 통합, 삶의 목적, 생성감, 삶의 만족, 주관적 안녕감,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rdelt, 2004a).

Takahashi 등(2002)의 연구에서 통합적 지혜는 삶의 만족과 관련이 있었는데 연구자들은 지혜와 삶 만족의 정적 상관은 지혜가 자기-발견적, 자기-확장적인 과정이며, 따라서 지혜는 내적인 보상과 만족한 경험을 수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의 핵심은 쾌락주의적 안녕감이 아니

라 행복 추구적 안녕감(eudaimonic well being)으로, 이것은 바람직한 욕구 만족과 나쁜 욕구 만족 사이의 구별이고, Rogers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잠재력 실현을 표상하는 것으로 완전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의에서 볼 때, Ryff의 심리적 안녕감은 지혜와 관련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몇몇 연구들은 지혜가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과 정적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Helson & Srivastava, 2001; Wink & Helson, 1997).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자기 자각이 늘어나고 자신감을 갖게 되며 또한 지혜롭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느낌을 평가하는데 개방적이고 능숙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정서와 지혜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왔지만, 지혜와 정서경험, 정서조절의 관계는 연구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영역이다. Kunzmann과 Gruhn(2005)는 특정 정서적 경험이 지혜 획득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지혜는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도록 정서조절을 촉진시키고,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정서적으로 역기능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또한 Kramer(2000)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그 자체로 보상을 주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추구하는 것에서 즐거움과 평안을 얻으며, 지혜를 소유하는 것은 절망보다는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하였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생을 순간순간 그리고 전반적으로 즐기고, 사람들은 지혜를 실천할 때 정적 정서를 경험한다(Csikszentmihalyi & Rathunde, 1990).

지혜의 가치와 중요성에 비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지혜 연구의 수는 매우 부족하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혜는 각 시대의 지적,

도덕적, 문화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지혜에 대한 개념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Clayton et al., 1980; Takahashi et al., 2000). 따라서 한 시대의 특정 문화에 속한 일반인들의 지혜 개념에 대응하는 특징을 발견해내는 것이 지혜 연구의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지혜를 측정하는 기존 척도들이 존재하지만, 이 척도들 각각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Baltes 등(1990)의 측정방법과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권유경(1993)의 측정도구는 “자기자신”의 삶에 대해 묻지 않았고, 단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그것에 대한 문제 해결방법을 묻고 이것을 5가지의 지혜의 범주로 채점한다. 하지만 이것은 특정 지혜 영역의 지적인 지식을 깨는 것이지 지혜 그 자체를 잴 것이 아니다(Ardelt, 2004).

Webster(2003)의 지혜 측정도구는 지혜의 비인지적 요소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인지적 요소가 제외된 도구이다. 하지만 인지적 역량과 관련된 것은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지혜 요인이다(Birren et al., 1990). Yang(2000)의 지혜 척도는 동양의 지혜 연구이기는 하나 개인의 지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지혜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Ardelt(2003)의 도구는 Clayton 등(1980)의 문헌에 기초하여 지혜를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하였으나 실제 일반인이 생각하는 지혜에 대한 생각,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생각은 제외되어 있다. 또한 성기월, 이신영과 박종환(2010)의 지혜 척도는 노인을 위한 지혜척도로 개발되어 다른 집단으로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명시적 이론

의 지혜 개념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상학적 지혜, 즉 현재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혜 개념을 지혜 척도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혜와 적응 지표 변인들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연구 1은 한국판 지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기존 지혜 척도에 포함된 문항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지혜에 대한 생각을 수집하여 내용분석을 통해 척도 문항에 포함시켰다. 수집된 문항을 전문가 집단의 내용분석을 통해 최종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지혜 척도를 완성하였다.

연구 2의 목표는 개발된 지혜 척도를 대학생 집단에게 실시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1. 지혜 척도의 개발

1단계: 지혜 척도 예비문항 선정

연구 1은 두 단계를 거쳐 실시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문항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문화에서 나타나는 지혜를 포함하는 지혜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임으로 기존 지혜 척도의 문항과 다양한 연령층의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는 한국인 성인 표본에게 개방형 질문지를 실시하여 지혜 관련 문항들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문항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내용분석을 통해 최종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방 법

이론적 접근

지혜 연구자들의 이론과 기존의 지혜 측정 도구들에서 측정하고 있는 지혜의 구성개념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rdel(2003)의 3D wisdom scale, Webster(2003)의 SAWS(Self Assessed Wisdom Scale), Yang(2000)의 지혜 구성개념과 문항을 검토하였다.

경험적 접근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혜 연구에서 명시적 이론 접근만으로는 한국 문화의 지혜 개념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경험적 접근으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지혜 개념의 특징을 수집하여 그 자료를 문항 개발에 반영하였다.

연구 참가자

19-73세의 성인 2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가자는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대학에서 심리학 수업을 수강하는 학부생, 조리학을 전공하는 학부생, 그리고 학생들의 부모와 지인들이었다. 참가자의 전체 평균 연령은 28세였고, 이 중 남자는 80명, 여자는 144명이었다.

측정도구와 절차

또한 일반인들로부터 지혜 문항을 얻기 위해 개방형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에게 지혜와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한 다음, 지혜와 관련된 특성을 작

성하게 하였다. 지혜 특성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에는 지혜 개념에 대한 생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장 지혜로운 인물을 떠올려 그 사람들이 왜 지혜로운지를 생각하도록 하였다.

대학생 참가자들은 수업시간을 통해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연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 설문지에 답하게 하였다. 학생들의 부모와 다른 참가자들의 자료 수집은 학생들을 통해 수업시간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설문지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에게는 설문 참여에 대한 보답으로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참가자들이 설문 작성에 걸린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결 과

노인심리학과 정서심리학을 전공한 박사 3인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2인의 전문가 집단을 통해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이 전문가 집단은 1년 이상 지혜 세미나를 통해 지혜와 지혜 연구에 관해 공부하였다.

자료는 내용적으로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유목화하는 내용분석의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지혜 특질과 기존 지혜 척도의 문항을 합쳐 485개의 지혜 특질 문항 중 첫 번째로 표현이 매우 유사한 문항을 하나로 분류하여 353개의 문항으로 축약하였다. 예를 들어 ‘통찰력이 있다’와 ‘통찰력이 뛰어나다’는 ‘통찰력이 뛰어나다’로 통일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문항들 중 의미가 매우 유사한 표현들을 묶어 하나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주관이 뚜렷하다’, ‘자신의 소신을 밀고 나갈 줄 안다’, ‘소신있는 행동을 보여준다’는 동일한 의미로 간주되어 ‘주관이

뚜렷하다' 문항만을 선택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는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전문가 집단의 판단에 유사한 의미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하나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말을 잘 전달한다', '조리있는 언어 구사력', '자신의 의견을 언어로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언어 전달력이 뛰어나다'로 통일하였다. 이와 같은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의 과정을 통해 요인분석을 위한 예비문항 51개를 선정하였다.

2 단계 : 지혜 척도의 요인구조 분석

두 번째 단계의 목적은 첫 번째 단계에서 선정된 지혜 예비 문항 51개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지혜개념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최종 지혜 척도를 완성하는 것이다.

방 법

연구 참가자

18-74세의 성인 37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년 참가자들은 서울과 경기도 소재 대학에서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들이었고, 중년 참가자는 학생들의 부모님과 주변 지인들이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6.67세(표준편차 10.56 세)였고 참가자 중 남자는 152명, 여자는 226명이었고, 무응답이 1명이었다. 참가자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1명, 중학교 졸업 7명, 고등학교 졸업 37명, 대학 재학 262명, 대학교 졸업 5명, 대학원 이상 졸업 6명이었다.

측정도구와 절차

51문항 지혜 특질 척도

단계 2에서 최종 선정된 51개의 지혜 특질 예비문항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은 매우 그렇다).

대학생 참가자들은 연구자가 직접 수업시간을 통해 연구에 대해 설명한 다음, 설문지에 답하도록 하였고, 학생들은 설문 참가에 대한 추가점수를 받았다. 중년 참가자들의 경우는 학생들을 통해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설문을 배포, 실시하여 다음 수업시간에 가져오도록 하였다. 설문의 배포와 수거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참가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15분 내외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51문항의 예비문항에 대해 SPSS 15.0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추출은 최대 우도법을 사용하였고, 요인 간의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가정에 따라 사각 회전 방법(Direct Oblimin)을 사용하여 요인 회전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유가 1을 넘는 요인이 5개로 나타났다. 5개의 요인으로 묶인 문항들 중 의미상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이 있고 두 개의 요인은 해당 문항의 수가 단지 3개로 나타나 독립된 요인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다 나은 요인구조를 찾아내기 위해 스크리 도표에서 고유값의 하락이 멈추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4개 요인을 가진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인의 수를 4개

로 지정한 다음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명확한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인 부하량이 .30 이하인 문항 2개(‘자아 정체감이 뚜렷하다’와 ‘논리 정연하다’)를 제외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여러 개의 요인과 상관을 보이는 6문항을 다시 제거한 후(‘이상과 현실을 고려하여 조절할 수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한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진다’,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처신을 잘 한다’, ‘인내할 줄 안다’), 최종 43문항으로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은 16문항으로, ‘나는 정확하고 빠른 상황 판단을 내린다’, ‘나는 통찰력이 있다’, ‘나는 지식을 일상생활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나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등의 문항이다. 요인 1에 묶인 문항들은 주로 인지적 역량, 통찰, 문제해결 능력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요인 1을 ‘인지적 역량’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11문항으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을 잃지 않는다’, ‘나는 자기절제를 할 줄 안다’, ‘나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이룬다’, ‘나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와 같은 문항들이 묶였다. 요인 2를 구성하는 문항들은 주로 삶에서의 절제, 평정, 균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요인 2를 ‘절제와 균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10문항으로 ‘나는 미래에 대한 목표와 비전이 있다’, ‘나는 항상 자기계발과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나는 내가 맡은 일을 즐기면서 한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실천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3으로 묶인 문항들은 긍정적인 인생 태도와 가치관, 인생 향유 등에 관련된 것이므로 요인명칭을 ‘긍정

적 인생태도’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4는 ‘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나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와 같은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문항은 요인 2와 요인 4 모두에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내용상 요인 4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요인 4로 분류하였다. 요인 4에 속한 문항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배려, 대인관계 너그름과 같은 내용임으로 요인 명칭을 ‘공감적 대인관계’라고 하였다.

척도의 전체 Cronbach α 는 .93이었고, 각 요인의 Cronbach α 는 요인 1이 .90, 요인2가 .83, 요인3이 .83, 요인4가 .76으로 나타났다. 요인 간 상관을 보면, 요인 1과 요인 3의 상관은 .50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나머지 상관은 중간 정도의 크기였다. 요인 간 상관 계수는 표 1에 요인별 문항과 요인 부하량은 표 2와 3에 제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구조 모델이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성격 구성개념의 타당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표 1. 요인 간 상관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1	.35	.50	.16
요인2		.30	.32
요인3			.24

표 2. 지혜 척도 43문항의 요인구조(형태행렬)

	F1	F2	F3	F4
요인1-16문항: 인지적 역량				
46. 나는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한다.	.63	.07	-.05	.09
77.나는 정확하고 빠른 상황 판단을 내린다.	.62	.24	.02	-.13
70.나는 통찰력이 있다. 사물(사건)의 본질을 잘 꿰뚫어 본다.	.61	.13	-.07	-.01
24.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낸다.	.61	-.13	.05	-.06
25.나는 내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있다.	.60	-.19	.10	.04
68.나는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56	.18	.14	-.15
7.나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	.55	-.06	-.01	.26
1.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뛰어나다.	.54	-.10	-.03	.11
34.나는 관찰력이 뛰어나다.	.53	.08	-.05	.08
88.나는 지식을 일상생활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50	.20	.07	.07
14.나는 다양한 관점에서 볼 줄 안다.	.47	.03	.14	.21
50.나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다.	.46	.15	.20	-.17
98.나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42	.24	.16	-.06
41.나는 상과 벌을 적절하게 사용해 사람을 다룰 줄 안다.	.41	.17	.09	.05
96.나는 비판 능력을 가지고 있다.	.41	-.05	.34	-.05
100.나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8	.25	.12	-.07
요인2-11문항: 절제와 균형				
37.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는다.	.17	.65	-.09	-.04
9.나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12	.53	-.06	-.06
48.나는 공과 사의 구분이 확실하다.	.11	.52	.08	-.04
43.나는 자기 절제를 할 줄 안다.	-.08	.50	.18	.11
94.나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이룬다.	.12	.50	.14	-.05
91.나는 어떤 문제를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다.	.05	.47	.16	.14
39.나는 편견과 고정관념 없이 사람을 대한다.	-.01	.46	-.13	.25
21.나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	.01	.45	.06	.20
53.나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16	.44	.28	.20
35.나는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큰 목표를 추구한다.	.14	.42	.28	-.14
16.나는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한다.	-.05	.35	.25	.05
요인3- 10문항: 긍정적 인생태도				
101.나는 미래에 대한 목표와 비전이 있다.	.06	.02	.76	-.17
12.나는 인생의 가치와 목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	-.11	-.05	.73	.08
74.나는 항상 자기계발과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07	.12	.57	-.03
89.나는 나만의 인생철학을 가지고 있다.	.20	.05	.46	.04
102.나는 내가 맡은 일을 즐기면서 한다.	.20	.06	.44	.11
6.나는 나 자신을 자주 돌아본다.	.05	-.11	.38	.32
95.나는 내 자신의 삶을 즐긴다.	.21	.03	.37	.11
65.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실천한다.	.12	.30	.36	.06
30.나는 삶의 유연성을 알고 있다.	-.03	.03	.35	.16
13.나는 다른 사람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준다.	.24	.02	.31	.00
요인4-6문항: 공감적 대인관계				
22.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안다.	.15	.10	.05	.59
42.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19	.07	.02	.56
57.나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안다.	.10	.04	.17	.54
38.나는 내 주장만을 강요하지 않는다.	-.05	.25	-.01	.46
3.나는 나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한다.	.02	.07	.15	.45
60.나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11	.34	-.04	.30

표 3. 지혜 척도 43문항의 요인구조(구조행렬)

	F1	F2	F3	F4
요인1-16문항: 인지적 역량				
77.나는 정확하고 빠른 상황 판단을 내린다.	.69	.42	-.37	.05
68.나는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67	.37	.44	.04
46. 나는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한다.	.64	.30	.31	.20
70.나는 통찰력이 있다. 사물(사건)의 본질을 잘 꿰뚫어 본다.	.62	-.32	.28	.12
88.나는 지식을 일상생활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61	.42	.40	.23
25.나는 내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있다.	.60	.07	.36	.10
24.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낸다.	.59	.08	.31	.01
50.나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다.	.58	.32	.43	.00
14.나는 다양한 관점에서 볼 줄 안다.	.58	.31	.43	.33
98.나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58	.42	.43	.13
7.나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	.57	.21	.31	.33
96.나는 비판 능력을 가지고 있다.	.55		.52	.08
34.나는 관찰력이 뛰어나다.	.54	.28	.26	.19
41.나는 상과 벌을 적절하게 사용해 사람을 다룰 줄 안다.	.52	.36	.36	.19
100.나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2	.40	.37	.10
1.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뛰어나다.	.51	.11	.24	.16
요인2-11문항: 절제와 균형				
37.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는다.	.35	.67	.18	.18
91.나는 어떤 문제를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다.	.31	.58	.36	.34
43.나는 자기 절제를 할 줄 안다.	.20	.57	.32	.31
48.나는 공과 사의 구분이 확실하다.	.32	.56	.28	.16
94.나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이룬다.	.35	.56	.34	.16
21.나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	.22	.54	.24	.36
9.나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26	.53	.15	.11
35.나는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큰 목표를 추구한다.	.40	.50	.44	.08
39.나는 편견과 고정관념 없이 사람을 대한다.	.12	.50	.06	.36
53.나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00	.44	.04	.30
16.나는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한다.	.20	.42	.34	.21
요인3- 10문항: 긍정적 인생태도				
101.나는 미래에 대한 목표와 비전이 있다.	.42	.21	.76	.03
12.나는 인생의 가치와 목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	.26	.16	.68	.22
74.나는 항상 자기계발과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39	.30	.63	.16
102.나는 내가 맡은 일을 즐기면서 한다.	.46	.30	.59	.27
89.나는 나만의 인생철학을 가지고 있다.	.45	.26	.58	.19
65.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실천한다.	.42	.47	.53	.26
95.나는 내 자신의 삶을 즐긴다.	.43	.25	.52	.25
13.나는 다른 사람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준다.	.40	.20	.44	.12
6.나는 나 자신을 자주 돌아본다.	.25	.12	.44	.38
30.나는 삶의 유연성을 알고 있다.	.18	.17	.38	.24
요인4-6문항: 공감적 대인관계				
22.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안다.	.30	.35	.29	.66
42.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32	.32	.27	.62
57.나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안다.	.29	.30	.36	.61
38.나는 내 주장만을 강요하지 않는다.	.11	.38	.15	.53
3.나는 나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한다.	.19	.27	.29	.51
60.나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26	.47	.19	.42

방법이고(Hocevar & Chiou, 1995), 특히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문항 묶음을 하는 방법은 이론 변수들 간의 기저 구조를 확인하는데 좋은 방법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다.(Nasser, Takahashi, & Benson, 1997).

Nasser 등(1997)은 문항 묶음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는데, 첫째 각 문항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하고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한 요인에 함께 높은 부하값을 가진 문항들을 묶어 문항 간 상관을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문항 내용의 유사성, 요인 부하량과 요인-문항 간 상관을 기준으로 문항 묶음을 실시하였다.

요인 1의 경우 4개의 미니 스케일로 묶음을 시도하였고, 각각은 통찰력 요인(‘통찰력이 있다; 사물이나 사건의 본질을 잘 꿰뚫어 본다’), 문제해결 판단력 요인(‘정확하고 빠른 상황판단을 내린다’), 직관력 요인(‘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다’), 대인간 기술 요인(‘다른 사람을 잘 설득한다’)이었다. 요인 2는 3개의 미니스케일인 평정심 요인(‘어떤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는다’), 절제와 조절 요인(‘자기 절제를 할 줄 안다’), 균형 요인(‘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큰 목표를 추구한다’)으로 묶었다. 요인 3은 3개의 미니스케일로 구성하였는데 적극적 인생관 요인(‘항상 자기계발과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반성적 인생태도 요인(‘자신을 자주 돌아본다’), 긍정적인 인생철학 요인(‘자기 자신의 삶을 즐긴다’)이었다. 요인 4는 2개의 미니스케일로 구성되었는데, 타인 존중과 탈 이기주의 요인(‘자신의 주장만을 강요하지 않는다’), 타인 공감 요인(‘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한다’)이었다.

미니 스케일을 적용한 4요인 구조에 대해 AMOS(Analysis of Movement Structure) 5.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최대우도 추정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chi^2 = 132.384$, $df = 48$ ($p < .0001$), TLI = .942, CFI = .964로 Hu와 Bentler(1995)가 제안한 기준인 .90 이상을 충족시켰다. RMSEA는 .068, ECVI는 .562로 낮게 나타나 4 요인 요인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 2. KMWS의 타당화

연구 2의 목적은 연구 1에서 개발한 지혜 척도(KMWS)를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KMWS로 측정된 지혜 점수는 긍정적 적응 지표인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 정적 정서 경험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내는 반면 부정적 적응의 지표인 우울, 부적 정서 경험과는 부적 상관을 보여 공존타당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지혜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점수와는 높은 상관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 법

연구 참가자와 연구 절차

척도의 타당화 작업을 위해 두 번의 표집이 이루어졌다. 일차 표본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는 대학에서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

부생 383명이었다. 참가자 중 남자는 139명, 여자가 244명이었다. 참가자의 연령은 18세-40세로 평균 연령은 21.85세였다. 설문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이차 표본은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위한 것으로,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대학에서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241명이었다. 참가자 중 남자는 104명이었고, 여자는 137명이었다. 연령은 18세-45세로 평균연령은 22.5세였다. 표집이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 이유는 일차 표집 후 학생들의 종강으로 참가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검사-재검사 신뢰도 측정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일차 표본 참가자에게는 측정도구 모두를 실시하였고, 이차 표본 참가자는 검사-재검사 신뢰도 측정을 위해 지혜 척도만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수업시간을 통해 직접 배포하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지혜 개념이 가진 사회적 바람직성 속성을 고려하여 참가자들에게는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라고 실험의 목적을 소개하였다. 참가자가 설문지 작성에 걸린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측정 도구

지혜의 측정

연구 1에서 제작된 KMWS를 사용하였다. 4개 요인의 4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하위 요인은 인지적 역량, 절제와 균형, 긍정적인 인생태도, 공감적 대인관계이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해당하는지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

연구 1의 요인 분석 단계에서는 7점 척도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중노년을 대상으로 본 척

도를 사용하여 대학생과 비교할 것을 고려할 때, 척도의 응답 분포가 커지면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는 응답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타당화 과정에서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에 참가한 241명은 일차 평정을 하고 2주 후에 다시 이차 평정을 실시하였다.

심리적 적응의 측정

심리적 안녕감.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PWB: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를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 등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6개의 하위요인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자아수용으로 이것은 자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선과 악을 포함해서 자아의 다양한 측면을 인정하고 수용해서 자신의 과거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Erikson의 자아통합의 개념과도 유사하다.

둘째는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로 타인과 따뜻하고 만족하고 신뢰할만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타인의 안녕을 염려하고 뛰어난 감정이입 능력을 보이고, 친밀감을 가지며, 주고받는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셋째는 자율성으로 사회적 압력이나 일상생활의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자기 내부의 개인적 기준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넷째는 환경 통제로 이것은 환경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유능감을 가지는 것이다. 일련의 복잡한 활동들을 통제하고, 주변의 기회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개인의 욕구와 가치에 맞는 상황이나 맥락을 선택하거나 창출해내는 능력이다. 다섯째는 인생 목표로 인생에 있어서 목표와 방향감을 가지는 것이다. 현재의 삶과 과거의

삶에 의미가 있다고 느끼고 인생의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은 개인적 성장으로 자아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고 새로운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것이다.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아와 자신의 행동에 발전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Cronbach's a*는 .95이고 각 요인별로는 자아수용 .86, 긍정적 대인관계 .87, 자율성 .76, 환경통제 .81, 삶의 목적 .82, 개인적 성장 .76이다.

삶 만족. Diener, Emmons, Larson, 그리고 Griffin(1985)이 개발한 삶만족 척도(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류연지(199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5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 삶만족 척도의 *Cronbach's a*는 .87이다.

우울. 우울 척도(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진경구와 이민규(1992)가 번안한 한국판 척도 20문항을 사용하였다. CES-D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느낌이나 행동을 묻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거의 드물게(1일 이하) 1점, 때때로(1일-2일) 2점, 상당히 (3-4일) 3점, 대부분(5-7일)). 본 연구에서 우울 척도의 *Cronbach's a*는 .94이다.

사회적 바람직성 측정

Paulhus(1998)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BIDR: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를 정보라(2005)가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과정을 거쳐 개발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중

에서 자기기만 긍정성 척도(self-deceptive positivity scale)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람들의 자기 기만적 긍정적 의견을 재는 것으로, 지혜 연구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기 위한 적합한 척도이다(Ardelt, 2003). 예 문항은 “나는 내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왜 좋아하는지 항상 알고 있다”, “나의 결정들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등이다. 각 문항에 자신이 얼마나 해당하는지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기만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a*는 .72이다.

정서 경험의 측정

김민희, 민경환(2003)이 개발한 정서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경험을 재는 형용사 체크리스트로 정서의 활성화 차원이 낮은 섭섭함, 평온함의 정서를 포함하여 4개의 부적 정서와 2개의 정적 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6개의 개별 정서를 평소에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1점 거의 느끼지 않는다---5점 매우 자주 느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a*는 분노가 .71, 슬픔이 .81, 불안이 .70, 기쁨이 .89, 섭섭함이 .91, 평온함이 .75으로, 정적 정서는 .86, 부적 정서는 .87이다.

결 과

지혜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인지적 역량 요인의 경우 .90, 절제와 균형 요인은 .87, 긍정적 인생태도 요인은 .86, 공감적 대인관계 요인은 .79였고, 전체 척도는 .86이었다.

표 4.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내적 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사 내적 합치도	재검사 내적 합치도
요인1	.90	.87	.87
요인2	.87	.79	.78
요인3	.86	.77	.77
요인4	.79	.64	.67
전체	.86	.90	.90

연구 2에서 지혜 척도의 Cronbach's α 는 검사-재검사에서 인지적 역량 요인이 .87-.87, 절제와 균형 요인은 .79-.78, 긍정적 인생태도 요인은 .77-.77, 공감적 대인관계 요인은 .64-.67이었고 전체 척도는 .90-.90이다. 연구 2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내적 합치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지혜 점수와 타당도 척도들과의 상관을 보면, 전체 지혜 점수는 삶 만족($r = .44, p < .01$), 안녕감의 6개 하위척도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자아성장: $r = .45, p < .01$, 긍정적 대인관계: $r = .48, p < .01$, 자율성: $r = .53, p < .01$, 환경통제: $r = .58, p < .01$, 삶의 목적: $r = .61, p < .01$, 자아수용: $r = .52, p < .05$), 우울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14, p < .01$). 또한 정적정서 경험과는 정적상관, ($r = .32, p < .01$)을 부적 정서경험($r = -.24, p < .01$)과는 부적 상관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지혜 점수와 적응 변인 간 상관은 표 5와 같다.

변별타당도 지표인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상관이 .19($p < .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지혜와 같은 긍정적 속성을 측정하는 연구에서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Ardelt, 2003), 사회적 바람직성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표 5. 지혜 점수와 적응 변인 간 상관

	삶 만족	자아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	삶의 목적
인지적 역량	.34**	.40**	.46**	.55**	.49**	.46**
절제와 균형	.26**	.13*	.19**	.35**	.42**	.32**
긍정적 인생태도	.54**	.59*	.49**	.46**	.57**	.75**
공감적 대인관계	.06	.12**	.19**	.02	.14**	.21**
지혜 총점	.48**	.45**	.48**	.53**	.58**	.61**
	자아수용	우울	정적정서	부적정서	사회적 바람직성	
인지적 역량	.47**	-.06	.27**	-.14**	.21**	
절제와 균형	.27**	-.23**	.22**	-.29**	.09	
긍정적 인생태도	.60**	-.05	.29**	-.19**	.15**	
공감적 대인관계	.10	-.09	.11*	-.10	.08	
지혜 총점	.52*	-.14**	.32**	-.24**	.19**	

* $p < .05$, ** $p < .01$

논 의

지혜는 광범위한 문화적, 역사적 유산이므로 지혜의 심리학적 조작적 정의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Kunamann & Baltes, 2003). 이러한 이유로 Ardel(2004b)는 지혜 분야의 연구자들이 지혜의 적절한 정의, 조작화, 지혜 측정에 대한 토론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여러 경험적 연구에서 역사적 문화적 전통이 지혜 개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Takahashi et al., 2000). 또한 한국사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지혜가 현대의 리더십에 부합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리더십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므로 지혜와 리더십은 문제해결, 의사결정, 변화혁신을 일으킨다는 관점에서 서로 부합한다(김수동, 문형남, 2010).

이와 같은 필요성에서 본 연구자들은 한국인의 지혜 개념을 포함하는 지혜 척도를 개발하고 지혜의 구성개념을 확인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1의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지혜 개념이 4개 요인으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지혜의 네 요인은 인지적 역량, 절제와 균형, 긍정적 인생태도, 공감적 대인관계였다. 지혜의 내적 복잡성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의사결정, 문제해결, 그리고 다른 형태의 지적 능력에서 적어도 최소 수준의 역량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 차원은 “기본적인 삶의 실용에서의 전문가”라는 Baltes 등(1990)의 지혜 정의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Ardel(2003)의 인지적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들의 일부는 인지적 역량이 아닌 긍정적 인생태

도 요인으로 묶였는데, 이는 Ardel(2003)를 포함한 서구의 인지적 요인은 매우 광범위하여 ‘인생 태도와 관련된 지식’ 등을 인지적 요인으로 포함시켰으나, 본 연구에서 이것은 구분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공감적 대인관계 요인은 Ardel(2003)와 Webster(2003)의 척도에서는 독립적으로 구분되지 않았으나 Yang(2000) 척도의 ‘연민과 선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지혜의 중요한 요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들이 어렵게 획득한 비밀을 숨기는 구두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관여하고 자신들의 넓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통찰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다(Webster, 2007).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안녕감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 모두를 고려하며 개인적 인생 경험으로부터 얻은 통찰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사람인 것이다.

긍정적 인생태도의 몇몇 문항들은 Ardel(2003)의 반성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Webster(2003)의 ‘유머’와도 일맥상통한다. 지혜의 간접적 측정치를 사용한 Helson과 Srivastava(2001)의 연구결과는 자아 정체감의 확립과 뚜렷한 인생 계획 등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절제와 균형 요인은 Ardel(2003)와 Webster(2003)의 척도에서는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던 것으로, Yang(2000) 척도의 ‘겸손과 나서지 않음’ 요인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구보다는 동양에서 중요한 지혜의 구성 개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신중히 계획하고 조심스럽다(Carson & Langer, 2006)는 점을 상기해볼 때 절제와 균형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지혜가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지혜를 하나의 단일 요인으로 보지 않고 몇 개의 구분되는 하위 요인들의 조합으로 보는 것은 지혜에 대한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Birren 등(1990)은 지혜라는 것은 인간 자질의 위계에서 가장 상위에 존재하는 조직화된 체계로 여러 요소의 혼합이라고 했으며, 다른 연구자들도 비록 지혜의 하위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지혜가 삶의 여러 측면의 통합이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추출된 4개 요인은 서로 .16~.50의 상관을 보였는데, 이것은 이들 요인들이 개념적으로 볼 때 완전히 겹치는 것이 아니지만, 완전히 독립적이지도 않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이들 요인 간의 관계는 서로 상호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 대해 공감하고 연민을 가지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며, 또한 정확한 상황판단, 통찰, 직관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지혜가 높은 수준의 지혜 관련 지식과 높은 수준의 대인간 기술의 통합임을 강조하는 다른 연구자들(Ardelt, 2003; Baltes, Glück, & Kunzmann, 2002; Baltes et al., 2000; Clayton et al., 1980; Holliday et al., 1986; Kunzmann et al., 2003; Sternberg, 1985)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개발된 지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척도의 요인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9~.90이었고 전체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6으로, 시간의 경과에도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

나 신뢰할 수 있는 측정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지혜의 객관적 자기 평정이 긍정적 심리적 적응과는 정적 관계를, 부정적 심리적 적응과는 부적 관계를 보임으로써 KMWS가 지혜를 측정하는 적절한 도구로서 타당도를 가질 것이라는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혜는 중요한 인간 자원으로 성공적 발달의 한 측면이며, 지혜는 개인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에서 생산성과 안녕감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을 안내한다(Assmann, 1994; Baltes & Staudinger et al., 2000; Kramer, 2000; Sternberg, 1990, 1998)는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성숙하고 생산적이며 삶의 만족과 주관적 안녕감이 높고(Ardelt, 2004a), 지혜는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도록 정서조절을 촉진시키고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정서적으로 역기능적이 되지 않으며(Kunzmann et al., 2005), 지혜는 긍정적인 정서성과 관련이 있고 부정적인 정서성과는 부적으로 관련된다(Helson et al., 2001)는 선행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에서 절제와 균형 요인과 공감적 대인관계 요인이 인지적 역량이나 긍정적 인생태도에 비해 상관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절제와 균형, 공감적 대인관계와 관련된 지혜는 나이를 먹으면서 다양한 인생경험을 통해 획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 즉, 나이 들면서 신체적 능력이 감퇴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은퇴로 인해 역할을 상실하고, 사망으로 인한 친밀한 애착관계의 상실과 같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절제와 균형을 통한 평정심의 유지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동정 등이다. 반대로 인지적 역량이나 긍정적 인생태도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더 필요한 것으로, 직업이나 학교 장면과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 자질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 집단에서는 절제와 균형이나 공감적 대인관계 요인이 적응과 더 낮은 상관을 보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중노년기로 대상으로도 타당화를 실시하여 이것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혜와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상관은 $.19(p < .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Ardeli(2003)는 지혜와 사회적 바람직성의 상관이 $.3$ 이 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의 가설과는 달리 사회적 바람직성이 지혜와 어느 정도 상관을 가지나 이것이 이후 KMWS를 사용한 연구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혜의 객관적 자기 평정 도구인 KMWS는 사람들의 지혜수준을 잘 반영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연구의 한계점 및 미래 연구 방향

본 연구는 한국인들의 지혜에 대한 생각을 반영한 객관적 지혜 척도를 개발한 첫 번째 연구로, KMWS가 다차원적인 지혜를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참가자는 청년과 중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구 2의 타당화는 대학생을 대상으로만 실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집된 지혜 관련 특질이나 요인분석 결과, 타당화의 결과가 연령 편

향적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혜가 중노년기 적응을 예측하는 훌륭한 변인임을 고려할 때 (Ardelt, 2003; Webster, 2003),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혜 척도를 노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교차타당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KMWS가 중노년기 성인의 지혜를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임이 확인된다면, 중노년기 적응을 이해하고 성인기 후반의 적응 향상을 위한 개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래 연구는 다른 심리적 구성개념들과의 변별 타당도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창의성, 지능과 같은 관련된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이것이 지혜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혜, 지능, 창의성에 대한 Sternberg(1985)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이들 개념은 서로 중간 정도의 상관을 가지지만 충분히 변별되는 개념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소수의 적응 변인들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KMWS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인들과의 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혜로운 사람은 특정 도덕적 가치-사회적 관여, 개인적 성장-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Kunzmann et al., 2003), KMWS가 그러한 가치들과 정적 관계를 보이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리더십 특징과 지혜의 관계도 미래 연구의 영역이 될 것이다. SAWS가 변혁적 리더십 유형과 정적 상관을 가진다는 연구결과(Helson et al, 2001)로 볼 때, 특정 리더십 유형과 KMWS로 측정된 지혜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는 흥미로운 주제이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발달시키는 선행 변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혜 자체가 외부적인 개입에 의해 발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경험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지만, Sternberg(2000)의 주장처럼 지혜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특히 중노년기 성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안녕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1998). 심리 척도 핸드북. 서울: 학지사.

권유경 (1993). 삼세대간 지혜와 지능의 발달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9(2), 1-19.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김민희, 민경환 (2003). 노년기 정서경험과 정서조절의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21.

김수동, 문형남(2010). 지혜 개념과 그 계발, *교육철학*, 42, 1~26.

류연지 (1996). 성격 및 욕구수준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기월, 이신영, 박종환(2010). 한국노인의 지혜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30(1), 65-80.

전경구,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65-76.

정보라 (2005). 사회적 바람직성의 구인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다음 인터넷 국어사전.

<http://alldic.daum.net/dic/view>

Achenbaum, W. A., & Orwoll, L. (1991). Becoming wise: A psychogeront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job.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2, 21-39.

Ardelt, M. (1997). Wisdom and life satisfaction in old age. *Journal of Gerontology*, 52, 15-27.

Ardelt, M. (2000a). Antecedents and effects of wisdom in old age: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aging well. *Research on Aging*, 22, 360-394.

Ardelt, M. (2003). Empirical assessment of a three-dimensional wisdom scale. *Research on Aging*, 25, 275-324.

Ardelt, M. (2004a). Wisdom as expert knowledge system: A critical review of a contemporary operationalization of an ancient concept. *Human Development*, 47, 257-285.

Ardelt, M. (2004b). Where can wisdom be found? *Human Development*, 47, 304-307.

Assmann, A. (1994). Wholesome knowledge: Concepts of wisdom in a historical and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D. L. Featherman, R. M. Lerner & M. Perlmutter(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pp. 187-224).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Baltes, P. B., Glück, J., & Kunzmann, U. (2002). Wisdom: Its structure and function in regulating successful lifespan development.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327-34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Baltes, P. B., & Kunzmann, U. (2003). Wisdom. *The Psychologist*, 16, 131-132.

- Baltes, P. B., & Smith, J. E. (1990). Toward a psychology of wisdom and its ontogenesis. In R. J. Sternberg(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 87-12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ltes, P. B., & Staudinger, U. M. (1993). The search for a psychology of wisdo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 75-80.
- Baltes, P. B., & Staudinger, U. M. (2000). Wisdom: A metaheuristic (pragmatic) to orchestrate mind and virtue toward excellence. *American Psychologist*, 55, 122-136.
- Baltes, P. B., Staudinger, U. M., & Sowarka, D. (1990). Wisdom: one facet of successful aging? In M. Perlmutter (Ed.), *Late life potential* (pp. 63-81). Washington, DC: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 Birren, J. E., & Fisher, L. M. (1990). The elements of wisdom: Overview and integration. In R. J. Sternberg (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 317-33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son, S., & Langer, E. (2006). Mindfulness and self-acceptance.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24, 29-43.
- Chandler, M. J., Holliday, S. (1990). Wisdom in a postapocalyptic age. In R. J. Sternberg (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 121-14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ayton, V. P., & Birren, J. E. (1980). The development of wisdom across the life span: A reexamination of an ancient topic. In P. B. Baltes & J. O. G. Brim (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pp. 103-135). New York: Academic Press.
- Csikszentmihalyi, M., & Rathunde, K. (1990). The psychology of wisdom: an evolutionary interpretation. In Sternberg, R. J.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Erikson, E. H., Erikson, J. M., & Kivnick, H. Q. (1986). *Vital involvement in old age: The experience of old age in our time*. New York: Norton.
- Helson, R., & Srivastava, S. (2001). Three paths of adult development: Conservers, seekers, and achie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995-1010.
- Hocevar, D. & Chiou H. (1995). *Methodological approaches and issues in cross-cultural psychometrics The covariance modeling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1995 conference of the National Council on Measurement in Education San Francisco. CA.
- Holliday, S. G., & Chandler, M. J. (1986). Wisdom: Explorations in adult competence. In J. A. Meacham (Ed.), *Contributions to human development* (pp. 1-96). Basel: Karger.
- Hu, L. & Bentler P. M. (1995). Evaluation of model fit, In R. H.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pp. 76-99). Thousand Oaks, CA Sage.

- Kramer, D. A. (1990). Conceptualizing wisdom: The primacy of affect-cognition relations. In R. J. Sternberg (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 279-31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amer, D. A. (2000). Wisdom as a classical source of human strength: Conceptualization and empirical inqui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83-101.
- Kunzmann, U., & Baltes, P. B. (2003). Wisdom-related knowledge: Affective, motivation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1104-1119.
- Kunzmann, U., & Gruhn, D. (2005). Age differences in emotional reactivity: The sample case of sadness. *Psychology and Aging, 20*, 47-59.
- Labouvie-Vief, G. (1990). Wisdom as integrated thought: Histor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In R.J. Sternberg (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 52-8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vitt, H. M. (1999). The development of wisdom: An analysis of Tibetan Buddhist experience.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39*, 86-105.
- Meacham, J. A. (1990). The loss of wisdom. In R. J. Sternberg(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 181-21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sser T. Takahashi & Jeri Benson (1997). The structure of test anxiety in Israeli-Arab high school students: An application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 miniscales.
- Paulhus, D. (1998). *Paulhus Deception Scales(PDS): The Balanced Inventory of Desirable Responding 7: User's manual*. North Tanawanda, New York: Multi-Health Systems.
- Robinson, D. N. (1990). Wisdom through the ages. In R. J. Sternberg (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 25-5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 Staudinger, U. M., & Baltes, P. B. (1996). Interactive minds: A facilitative setting for wisdom-relate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746-762.
- Sternberg, R. J. (1985).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creativity, and wisdo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607-627.
- Sternberg, R. J. (1990). Wisdom and its relations to intelligence and creativity. In R. J. Sternberg (Ed.), *Wisdom: Its nature, origins, and development* (pp. 142-15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rnberg, R. J. (1998). A balance theory of wisdom.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 347-365.
- Sternberg, R.J., (2000). Intelligence and wisdom. In Sternberg, R.J., (Ed.). *Handbook of Intelligence* (pp. 631-6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kahashi, M., & Bordia, P. (2000). The concept

- of wisdom: A cross-cultural compariso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5, 1-9.
- Takayama, M. (2002). *The concept of wisdom and wise people in Jap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okyo University, Japan.
- Webster, J. D. (2003). An exploratory analysis of a self-assessed wisdom scal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0, 13-22.
- Webster, J. D. (2007). Measuring the character strength of wisdom.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65, 163-183.
- Wink, P., & Helson, R. (1997). Practical and transcendent wisdom: Their nature and some longitudinal finding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4, 1-15.
- Yang, S. (2000). *Conceptions of Wisdom among Taiwanese Chinese*. Doctorial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 Ylimaki, R. M. & McClain, L. J. (2009). Wisdom-centred educational leade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Leadership in Education*, 12-1. pp. 13-33.
- 1차원고접수 : 2011. 9 .30.
수정원고접수 : 2011. 12. 17.
최종게재결정 : 2011. 12. 17.

Developing Korean Wisdom Scale

Min-Hee, Kim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Kyung-Hwan, Mi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is aimed at developing the wisdom scale that is based on Korean's wisdom concept and testing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The purpose of study 1 is to develop a wisdom scale to measure wisdom of Korean people. To do so we selected item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a wisdom scale, integrating theoretical approach and experiential approach. Through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KMWS was developed. Wisdom was operationalized as a construct with 'cognitive competency', 'moderation and balance', 'positive life attitude', 'sympathetic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study 2 was conducted to tes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cale. Results indicated that KMWS has excellent reliability (test-retest = .86; Cronbach's Alpha = .90). And wisdom was positively related with life satisfaction ($r = .48, p < .01$), well-being ($r = .65, p < .01$), positive emotion experiences ($r = .32, p < .01$), by contrast wisdom was negatively related with depression ($r = -.14, p < .01$), negative emotion experiences ($r = -.24, p < .01$). Results indicated that the KMWS can be considered a reliable and valid instrument in large surveys of Korean populations.

Key words : wisdom, wisdom scale, KMWS, cognitive competency, moderation and balance, positive life attitude, sympathetic interpersonal relationship